

2011 도정백서

제3절 2011년도 도정 주요성과

제3절
2011년도
도정
주요성과

1. 2011년의 회고
2. 분야별 주요성과



제3절 2011년도 도정 주요성과

1. 2011년의 회고

2011년은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경제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큰 시련을 겪었으나 착실히 성장기반을 다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발전 동력 확보, 3농 정책으로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제행사 성공개최 및 내실 있는 준비, 미래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미래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역 특산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신해양시대를 선도할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성장거점 개발 및 SOC 지속 확충, 행복마을 확대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2. 분야별 주요성과

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발전 동력 확보

전라남도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였다. 민선 5기 공약인 기업 2,000개 유치를 목표로 총력추진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올 한 해 기업 569개 유치, 10조 9,451억원, 22천명 고용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산 MMA 등 고도·특허기술 보유기업을 외자유치(4건 7,385억원)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으로 작년에 이어 투자기업 서비스 만족도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나. 3농 정책으로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인증 점유율 전국 최고(농업 61%, 수산 98%, 축산 36%)와

국내 유일의 구제역 미발생 지역으로 전담하면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각인 되었으며, 전국 최초 유기농 실천보험 도입과 친환경농업연구소 설립, 전국 최초로 녹색축산 육성조례 제정 등 명실상부 친환경 청정 먹거리 생산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었다. 또한 농산물 품목별 조직화기업화를 통한 유통 체계 선진화,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서울 친환경 학교급식 시장 선점(쌀 48%, 과채류 51%)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농도(農道)로서 친환경 생명산업 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다. 국제행사 성공개최 및 내실 있는 준비

F1대회는 국내 단일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 관람객을 유치(160천명) 함은 물론 188개국 중계로 국가 및 지역브랜드를 제고하였으며, 2012여수세계박람회도 전시관은 2011년말, 기타 시설은 2012년 2월까지 완공 예정이다. 핵심 SOC인 원주~순천고속도로(2011년 4월 완공)와 전라선 KTX(2011년 10월)을 개통하여 성공개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106개 국가 및 9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신청하여 성공개최를 위한 박람회 붐 조성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2국제농업박람회는 전시관 건립 등 기반공사와 10개국 107개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였고, 2013 순천정원 박람회도 세계정원 10개소, 전시관 100개소 설치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 미래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역량 강화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 고분자 융·복합센터 등 4대 센터 완공과 고분자 융·복합센터 백신산업 특구지정을 추진 중이며, 프라운 호퍼 IME 연구소 및 IZI연구소 유치 확정을 통해 연구개발(R&D)기반 확충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풍력시스템 Test-bed 구축사업 선정 및

5GW 풍력프로젝트 본격추진 및 친환경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선정과 환경 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착공 등 신·재생에너지 전국 제1의 녹색산업 중심지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마. 지역 특산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

전남생물 자원 정보의 D/B 구축으로 기능성 규명과 동시에 유무형 특산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바이오산업센터 조성 및 게르마늄 젓갈타운 건립 등 해양생물자원의 R&D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 신해양 시대를 선도할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남해안·서해안 및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로 세계적 관광벨트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슬로시티·명량대첩축제 등 다양한 상품개발 및 스포츠 이벤트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선도사업인 진도항 배후지개발사업의 전국최초 개발계획승인, 해상국립공원 구역 합리적 조정, 광양~일본 카페리호 및 전남~제주 해양관광루트 개발 등을 통해 남해안시대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사. 지역 성장거점 개발 및 SOC 지속 확충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삼포지구는 F1 경주장 준공 및 양도·양수를 완료하였고, 삼호·구성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였다.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부지매입(13개 기관), 청사설계 발주(14개 기관), 청사 착공(3개 기관)이 추진 중이며, 부지조성이 85% 완료되는 등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도내 1시간대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85% 공정으

로 2012년 4월에 계통될 예정이다.

아. 행복마을 확대 조성 및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

행복마을 조성은 90개 마을, 한옥 1,281동을 건립하여 미래 농어촌 성공모델로 부상하고 있고, 한옥민박 및 한옥 건축인력양성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사업 및 전통 한옥 대중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매년 영어체험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원어민 보조교사를 두어 농어촌지역 영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초·중학교 무상급식 및 전남 미래형특성화 고교 설립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인재육성기금 조성 등 장학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